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바른 시작- 세부 정보〉

사실적 독해란 '글 안에서'

글의 '세부 정보'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말로 '요약'해보는 독해법으로

글의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쉽게 정리하자면

'세부 정보, 주제, 구조.'

이 3인방을 정복해야 해요.

그 중 가장 먼저 공부하길 추천하는 건 세부정보 부분이에요.

'비교 대조가 나오면 기준점과 대상을 살핀다'

'상관 관계가 나오면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과정이 나오면 그 원인에 집중한다'

같은 기준점을 잘 정리하더라도

여전히 세부 정보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유사한 용어가 반복되는 경우

EX) 공적인 영역에서 고민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부의제'하고 한다. 이런 정책의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제를 '정책 의제'라고 한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경우

EX)절자상의 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은 정의의 과정에서 볼 때 '상충'되지 않는다. 두 개념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화해 가능한'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리할 복잡한 관계가 등장할 경우입니다.

EX)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공정과 정의의 관계

〈어려운 경우- 복잡한 관계1〉

오늘은 복잡한 관계에 나타나는 3가지만 정리해봅시다..

우선 'A로서의 B'가 등장할 경우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A로서의 B의 형식으로 등장한다면

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인지

공정이 정의로운 특성을 가지는 것인지 혹은 정의가 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헛갈리기 딱 쉬워요. 만약 두 A와B가 유사하다면 더욱 더 헛갈리기 쉽겠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때는 B를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줘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면 정의가 공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시를 한 번 봅시다.

EX) 고등학교 고전- 정의론

질서정연한 사회란 사회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다. 모든 사람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여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이며, 사회의 기본 제도들은 이 원리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 된다.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선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합의를 통해 원칙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정의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는 이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 지는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적 상태는 관념적인 상황이다. 실재하지 않는 상황인 이 원초적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선천적 능력 더 나아가 심리적인 경향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스스로의 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의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 간다.//

우선 주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출되는 방식과 상황'이에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지게 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최초의 상황은 실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이 상황 안에서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그 무엇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서술에서 '정의가 공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 공정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CF) 평등, 형평, 공평, 공정(결과의 평등↔과정의 평등)

평등, 형평, 공평, 공정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4가지 용어는 주로 배분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얼마큼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지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평등에서 공정으로 갈수록 타당한 차이가 인정되는데 타당한 차이란 합당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차이로 쉽게 정리하면 결과적 차이입니다.

평등은 주로 동등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며 무조건적인 평등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형평과 공평은 우리가 보는 글에서는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로 쓰여요. 공정은 출발선의 평등을 이야기 하며 경쟁의 기회와 조건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평이 결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 이라면 공정은 과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러한 공평과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개념입니다.

또 '뫼토스로서의 종교적 의례'이라는 구절에서도 종교적 의례가 뫼토스적인 성질 즉 이성적이고 논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는 대신 믿고 수용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해야 해요.

EX) 종교적 의례는 기본적으로 뉘토스적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참과 거짓 그리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례에서 인간은 초자연적인 신과 그 신이 행한 행위와 직면하고 그 신에 의해 성화되는 시간으로 회기 한다. 이때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논리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정지되고 신의 창조행위 시간 그리고 신만이 존재했던 원초적 시간이 드러난다. 이 시간은 참과 거짓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믿음을 요구한다.//

우선 주제를 살펴보자면 '종교적 의례의 뉘토스적 성질'이 될 거예요.

종교적 의례는 로고스적 성질과 뉘토스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특히 뉘토스적 종교에서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신의 시간 신의 논리가 드러나며 이 신의 논리는 참과 거짓의 뛰어넘는 그 자체이며 믿음을 요구하게 돼요..

여기서도 뉘토스로서의 종교적 의례에서 종교적 의례가 뉘토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성질이 신의 시간과 연관되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합시다.

CF) 뉘토스- 신화. 믿음이 필요// 로고스- 철학. 논증으로 참과 거짓에 대한 이성적 탐구 필요

신화를 일컫는 그리스어 뉘토스란 사람의 이야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극의 소재나 희극의 줄거리는 물론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주제도 뉘토스가 된다. 그런데 이 뉘토스는 '로고스'에 대립하는 어휘이다. 그것은 공상과 이성으로,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과 논증하는 말로 대립한다. 그래서 뉘토스와 로고스는 말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양자 다 같이 정신 생활의 기본적 기능이다. 논증으로서의 로고스는 설득을 목표로 하며 듣는 자의 판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로고스는 올바른 논리적인 경우에는 진실로 판명되지만 오류가 드러날 경우에는 허위가 된다. 그러나 뉘토스는 오로지 뉘토스 외에 아무 목적도 없다.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다. 그것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감성을 자극하여서든, 이성을 자극해서든, 아니면 아름답거나 혹은 사실처럼 생각되든, 아니면 그저 믿어보고 싶어서 믿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설의 말씀은 '참'의 진리이자 로고스적인 것이다. 이 믿음은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참인 것이며 올바른 것으로 그는 이 참인 말씀에 의해 설득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로고스를 수용하게 되고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뉘토스가 필요하다. 뉘토스가 즉 논변이 필요 없는 신화가 이 로고스를 뒷받침하며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를 만든다.

<어려운 경우- 복잡한 관계2>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두 번째로 정리할 개념은

'A는 B를 함의한다'가 등장할 경우예요.

같은 논리적 관계를 보이는 서술로

A이면 B이다

A는 B의 충분 조건이다

B는 A의 필요 조건이다

B는 A에 함의된다가 있어요

모두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는 특수성이 배제된 이론의 실패를 함의한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를 특수성이 배제된 이론의 실패의 하위 내용 혹은 구체적 사례로 이해해줘야 해요.

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가 특수성이 배제된 이론의 실패를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둡시다!

사실 이 부분은 논리적 관계로 수능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우선 예시로 정리합시다

EX) 인식론이 지닌 주관과 객관의 구분은 단순히 그 자체의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재와 현상, 실천과 이론, 육체와 마음 등의 근대적 이원론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 근대적 사고에 대한 비판은 이 이런 이원론의 고리를 끊거나 해체하는 과정을 함의한다.

하지만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식론에 대한 반성 하나로 는 부족하다. 과연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를 벗어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브렌타노이며 그 개념은 지향성이다.//

이 글의 주제는 서양 근대 철학이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구조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방법'이예요.

여기서도 '근대적 사고에 대한 비판은 이 이런 이원론의 고리를 끊거나 해체하는 과정을 함의한다.'이라는 이원론적 고리를 끊고 해체하는 행위가 근대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포함된다고 봐야 해요.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어려운 경우- 복잡한 관계3〉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비교 대조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 만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비교 대조가 이루어질 때

분류된 개념들은 분류되기 이전의 큰 개념의 특징을 공유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봅시다.

즉 A가 X와Y 로 분류된다면 X와 Y는 비록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A가 가지고 있는 A'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X \rightarrow A'$ (참) // $Y \rightarrow A'$ (참)

예시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EX) 흡착은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 등 다른 상을 지닌 물질의 분자가 달라붙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다른 상의 물질이 흡착되는 면을 계면이라고 한다. 흡착은 움직이는 물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흡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물질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에 표면의 원자와 기체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의 흡착세기가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 보다 클 때 흡착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열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흡착세기가 커질수록 더 커진다.

이러한 흡착은 크게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으로 나뉜다. 물리 흡착은 분자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흡착이다. 전자의 이동이나 분자 구조의 변화 없이 전기적으로 중성의 입자들간의 인력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반면 화학 흡착은 화학 결합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거나 분자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화학흡착은 전자가 이동하는 이온 결합이나 전자가 공유되는 공유 결합을 동반하며 주로 분자들은 원자들로 해리된 후 재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리 흡착은 물리적 변화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흡착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와 달리 화학 흡착은 화학반응이기 때문에 금속 표면의 원자와 기체 분자가 끌어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국어/ 서성수

당기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보다 높을 때만 일어나게 된다.//

주제는 흡착이 일어나는 조건과 흡착의 종류예요

만약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분류되면서 흡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물리 흡착이나 화학흡착 중 화학흡착에만 연결되는 것처럼 해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글을 멈추고 물리흡착이든 화학흡착이든 흡착의 성질을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설명하자면 흡착은 기본적으로 고체와 기체가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이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 보다 커야 해요.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 모두 기본적으로 흡착세기가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 보다 커야 해요.

다만 물리 흡착의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과 분자 구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힘이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 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반면 화학 흡착은 흡착세기가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에 화학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더한' 값 보다 커야 해요.

시험장에서는 큰 개념의 특징을 작은 개념이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합시다.

두 번째 자료는 자습서를 정리해둔 내용이니 암기해요.

다음시간에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세부정보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정리합시다.